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적극적태도 제목 :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7절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2:13-17)

선한일과 말에 굳건하자.

선한일이란 무엇인가? 선한 일에 굳건하는 것은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마귀는 아무리 선을 많이 해도 그의 일은 악하다. 선행의 의도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 보여도 선하시다. 다만 악해 보일 뿐이다.(채찍질이 악해 보일 뿐.) 왜냐면 그 의도가 선하기 때문이다. (침몰하는 배에서 남편은 구명보트에 올라 살았지만, 아내는 죽었다. 도덕적으로 악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우리 아이를 잘 돌보아 주시오 였다. 남편의 행동은 악해 보이지만, 그 의도가 선했다. -즉 **마귀에게 설득당하지 않아야 한다.** 마귀에게 속는 행위가 곧 악한 일이다.)

2.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국법**도 잘 지켜야 한다. 열가지 모두 잘 지켜야 한다.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정신**을 잘 **배워서** 지켜야 한다.

3.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더 먼 사람에게 **영적**(그 사람의 영혼

을 사랑하며 돕는 것), **정신적**(말로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 **지적**(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를 공손히 제공하는 것), **정서적**(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도록 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 **의지적**(뜻을 존중함), **종교적**(기독교적인 가치를 베푸는 것-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전도하는 것), **문화적**(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경제적**(베풀 수 있는 한도에서 금전을 제공하는 것), **물리적**(의식주를 공유하는 것), **시간적**(시간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 배려와 유익과 도움을 베풀며 공유하는 것이다.

4. **정의** (공평을 위해 노력하고, 시비를 가릴 때 진리의 편에 서는 것)
5.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돕는 것.
6.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1-5까지를 잘 할 수 있는 것.(열심히 일하는 목적의식이 선행해야 함)
7.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에 굳건 하는 것. (사상적으로 건강함을 뜻함)

-성실을 뜻함. (정성 성(誠); 말씀언 변에 이를 성, 열매 실(實)-말에 열매가 있고 반드시 말하는 대로 되고, 그 열매가 썩거나, 비었거나 하지 않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책임을 질 것. 전해들은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 내 귀에 아무리 좋게 들려도 성실하지 않는 말은 인사말에 불과하다.

-자기가 한 말이 아니면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지만, 알고 나면 행동이나 태도를 바꿀 것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함. 나에게 유익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되는 말은 해서는 않된다. (보이스 피싱)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잘 숙련하여 사상적으로 건강해야 함.(본문의 진의)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 성령

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이 표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마땅히 감사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큰 복. 마땅히 감사해야 함.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심.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
=진실한 그리스도인.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한 진리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됨. 그 자녀의 영광을 회복함.

-더이상 마귀에게 끌려 다니지 않음. (끌려 다니지는 않아도 유혹을 받기는 함.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함.)

15 그러므로 형제들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치를 지키라.

-전통을 지키는 것은 골동품을 간직하라는 뜻이나, 불편해진 문화를 고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가치를 보존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나 문명은 바뀔지 모르나,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

-잘못된 관습은 뜯어 고치는 것이 좋지만,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관습이 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나 가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전통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결혼 문화는 지나친 면이 많다.)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도우신다.

-살전2장 앞 부분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로 시작한다. 적그리스도들을 조심해야 한다. (요즘은 IS가 이런일을 자행한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풍요롭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와 저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해결하셨다. 그러나 마귀가 할수만 있다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유혹하려고 드니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설령 현재로서는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니 우리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땅을 위한 기도 말씀: 사무엘하 21장 1-14절

1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4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7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8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9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0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베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뻘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삼하 21:1-14)

죄와 저주에 대한 구약적 이해.

오늘날에는 죄를 다스리는 경찰과 사법기관이 있고, 교도소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닌 단순 구조로 억울함을 풀었다. (물론 두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은 있고, 완벽한 사법부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사법부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데, 죄를 방지하지 않고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

즉, 아직 사법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은 구약시절에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계신다.

물론 끊임없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통해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계신다.

-구약에서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들에게 정의 실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하였다.(오늘날에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범죄는 고소가 아니더라도 수사하도록 됨)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

사울이 이들을 진멸하기 원하였다.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은 없지만, 개인적인 원한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하나님은 당시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지, 성전에 봉사하고 있는 기브온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협심으로 왕권을 이용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리스바의 아들과 메랍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아마도 리스바와 메랍이 관련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리스바는 자신의 처지를 잘 깨닫고 억울하게 죽은 자녀들의 시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시에는 사형을 시키고도 시신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 또한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바는 시신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저주가 풀리고 가뭄이 해갈되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원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다윗은 그 후에 시신을 가족묘에 안장하도록 하고, 기왕에 사울과 그 자녀들의 시신까지도 안장하도록 해서 사형을 당한 가족들을 최대한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